

# 萬海詩研究

—시집 「님의 沈默」을 중심으로—

李 庸 勳

A Study on Man-hae's Poems

Lee yong-Hoon

< 차례 >

- |                       |                 |
|-----------------------|-----------------|
| I. 머리말                | V. 萬海詩의 根本精神    |
| II. '님' 解釋問題와 '님'의 正體 | VI. 萬海詩의 詩史的 位相 |
| III. '님'의 不在와 認識의 空間  | VII. 맺음말        |
| IV. 超越的  비전 (Vision)  | 參考文獻            |

## Abstract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ed to inquire into Han Yong-Un's poetical realm and spirit. In interpreting his works, the author avoided the approach of analyzing the social background of his lifetime, but chose the approach of analyzing his works.

The outlin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ly, the beloved ('Nim') which is the core of his poems is the eternal prop of life.

Secondly, he realized the entity of the beloved, recognizing absence of the beloved. Thirdly, he overcame reality and saved his-self through a vision of future.

Fourthly, the underlying fundamental spirit in his poems is the spirit of fusion.

Fifthly, his poems are significant of poetical history, having overcome sentimentalism of early poems in 1920's.

## I. 머리말

우리 나라 近代詩史에서 紀念碑의인 詩集 「님의 沈默」을 남긴 萬海 韓龍雲은 宗教·社會參與·文學 등 각 분야에서 完美한 一家見을 이룬 인물이었다. 그는 僧侶요 獨立運動家요 詩人이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그의 詩에 대한 많은 연구 업적들이 축적되어 있지만, 그 연구 업적들의 대부분은

그가 승려요 독립운동가라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文學的 脈絡보다는 주로 社會的 脈絡에 치중된 것이었다. 作品解釋은 일차적으로 文學的 맥락에서의 추구가 先行되어야 하며, 社會적 맥락에서의 추구는 그 다음 문제이다. 작품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社會的 機能을 강조하는 것은 작품의 本意味를 제약하며 轉倒할 공산이 크다.

이에 本稿는 萬海詩의 世界와 精神을 주로 文學的 脈絡에서 검토·고찰하려는 작업임을 밝힌다. 특히, 本稿는 萬海詩의 認識世界와 詩的 比喩(vision)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 작업은 社會史的 接近方法에 흔히 강요되고 있는 詩解釋의 圖式主義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萬海의 詩作品에서 本稿가 대상으로 한 작품은 시집 「님의 沈默」에 掲載된 작품들이고, 해방 후 「民聲」誌 및 최근의 「讀書新聞」에 의해 대거 발굴된 遺作<sup>1)</sup>들은 그것이 「님의 沈默」 掲載分에 비해 作品上 훨씬 未及하다는 점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 둔다.

## Ⅱ. '님' 解釋問題와 '님'의 正體

시집 「님의 沈默」에 일관되어 있는 핵심은 '님'이다. 그러면, 萬海詩에 있어 '님'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내포한 것일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한 여러 研究家들의 見解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다음은 萬海詩의 '님'의 본질에 대한 여러 연구가들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 A) ① 그의 임은 바로 日帝에 빼앗긴 祖國이었다. (鄭泰鎔)<sup>2)</sup>  
 ② 民族의 正氣다. (송옥)<sup>3)</sup>  
 ③ 단해의 님은 衆生의 마음을 뜻하므로 祖國과 民族이 그 실체라 할 수밖에 없다. (任重彬)<sup>4)</sup>  
 ④ 단해의 님은 「조선」일 것이다. (辛夕汀)<sup>5)</sup>
- B) ① 불교계에서 말하는 이른바 象生을 그의 대표적인 '님'으로 확정하겠다. (朴魯堉)<sup>6)</sup>  
 ② 님은 그의 內面精神과 追求의 世界로 보면 역시 佛敎的 眞理가 힘 있게 움직이고 있다. (金雲學)<sup>7)</sup>  
 ③ 涅槃의 경지에 들게 하는 참다운 我 즉 無我(Anatman)이다. (吳世榮)<sup>8)</sup>
- C) ① 겨레와 부처이다. (金相善)<sup>9)</sup>

1) 1948년 「民聲」誌 제4권 제9~11호에 「續 님의 沈默」이란 題下에 掲載된 18편(時調포함), 그리고 1970년 11월 「讀書新聞」 창간호에 게재된 47편(일부는 「民聲」誌 발표분과 중복됨)의 遺作이 있다. 이 遺作들은 최근 乙魯文庫로 간행된 「님의 沈默, 續님의 沈默」에 모두 수록되었다.

2) 鄭泰鎔, 「現代詩人研究」, 現代文學 제29호, p. 192.

3) 宋 穢, 詩學評傳, 서울, 一潮閣, 1960. p. 316.

4) 任重彬, 韓龍雲一代記, 서울, 正音社, 1974. p. 159.

5) 辛夕汀, 「詩人으로서의 萬海」, 나라사랑 제2집, 서울, 외출회, 1974. p. 25.

6) 朴魯堉·印權煥, 萬海韓龍雲研究, 서울, 通文館, 1960. p. 150.

7) 金雲學, 「韓國現代詩에 나타난 佛敎思想」, 現代文學 제118호, p. 62.

8) 吳世榮, 「沈默하는 님의 逆說」, 국어국문학, 65. 66, 서울, 국어국문학회, 1975. p. 267.

9) 金相善, 「韓龍雲論序說」, 上揭誌

- ② 祖國이며 겨레요, 나아가서는 衆生이며 佛法이기도 하다. (徐廷柱)<sup>10)</sup>
- ③ 祖國만이 아니라 佛일 수도 있고 빼앗긴 채 학대 받으며 사는 人類의 運命의 무궁함을 상징할 수도 있다. (張文平)<sup>11)</sup>
- ④ 民族과 佛을 一體化한 ‘님’에의 가없는 思慕이다. (趙芝薰)<sup>12)</sup>
- ⑤ 님은 어떤 때는 佛陀도 되고 自然도 되고 日帝에 빼앗긴 祖國이 되기도 하였다. 님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그만큼 形而上學的인 多樣한 神秘性을 띠우고있다. (趙演鉉)<sup>13)</sup>
- D) ① 生命的 根源이다. (金澤東)<sup>14)</sup>
- ② 조국이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랑·희망·이상을 두루 상징하는 말이다. (조동일)<sup>15)</sup>

이상과 같은 諸見解들을 類型化하면 (A)群은 萬海가 民族獨立運動家라는 점을 강조하여 民族的 측면에서 ‘님’을 파악한 것이고, (B)群은 승려라는 점을 강조하여 佛敎의 측면에서 ‘님’을 파악한 것이며, (C)群은 그 양쪽을 종합한 일종의 折衷的 태도로서 ‘님’을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D)群은 조국이 님, 佛陀니 하는 견해와는 다르게 詩作品 자체에서 ‘님’을 파악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하겠다.

그가 한 평생 民族을 사랑하고 모든 정력을 조국에 바친 民族正氣의 등불이었음을 생각할 때 ‘님’은 A群의 見解처럼 日帝에 빼앗긴 祖國일 것이며, 한편 佛家에 歸依한 승려 신분으로서 大乘佛敎의 진리를 외쳤던 佛徒<sup>16)</sup>임을 더하여 볼 때, ‘님’은 B群의 견해처럼 분명히 佛陀요 衆生일 것이다. 또 그가 禪師이면서 革命家요 동시에 詩人으로서 각각 완성된 발자취를 남긴 全人的 인물임을 생각할 때 ‘님’은 C群의 견해처럼 그 양쪽을 포괄하는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叙上의 諸見解에서 A. B. C. 群은 모두 ‘님’解釋의 硬直된 圖式性에 빠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님’의 실체를 찾으려는 작업이 詩作品 자체의 包括的인 분석과 淸查에서보다는 人間 萬海의 傳記의 사실에의 優位와 偏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民族獨立運動家니까 그가 지향했던 ‘님’은 곧 祖國을 뜻한다라든가, 또는 佛家에 歸依한 승려니까 ‘님’은 곧 佛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은 비록 충분하고 치밀한 考證이 수반되었다 해도 詩作品 理解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다. 萬海라는 人物을 통해 自意的으로 조작해 낸 어떤 (偶像化의 壓力)<sup>17)</sup>이 ‘님’을 祖國으로 佛陀로 또는 祖國과 佛陀의 折衷으로 圖式化해 버리는 것은 萬海詩의 바른 이해를 제약할뿐더러, 그의 詩의 意味를 誤導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님’의 정체를 찾기 위한 작업은 먼저 ‘님’解釋에 있어서, 社會的 내지 宗教的 의미의 極大化라는 종래의 견해들이 지닌 문제점을 반성하는 자리에서 출발되어야 하더, 이러한 반성의 자리는 ‘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詩作品의 社會的·政治的 意味 또는 宗教的 의미는 항상 작품이 포괄하는 총체적 체험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萬海詩에 있어서 ‘님’은 어디까지나 그의 詩가 내포한 체험의 全體性 및 包括性 속에서 추구되고

10) 徐廷柱, ‘文學과 意志’, 大韓佛敎 제358호, 1970. p. 3.

11) 張文平, ‘韓龍雲의 詩’, 現代文學(1962. 4), p. 90.

12) 趙芝薰, ‘萬海文學의 精神’, 韓龍雲 全集 제6권, 서울, 新丘文化社, 1974.

13)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서울, 人間社, 1968, p. 597.

14) 金澤東, 韓國近代詩人研究(I), 서울, 一潮閣, 1974. p. 10.

15) 趙東一, ‘金素月·李相和·韓龍雲의 님’, 文學과 知性 24,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76, p. 459.

16) 朴魯堉·印權煥, 前揭書, pp. 76~82 참조.

17) 金興圭,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創作과 批評 40.,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76, p. 229.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反省의 자리에서 이해되는 '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먼저 '님'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일단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시집 「님의 沈默」의 序文에 해당하는 「군말」일 것이다. 그것은 이 「군말」이 '님'에 대한 萬海 자신의 직접적인 解説이기 때문이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衆生이 釋迦의 님이라면, 哲學은 칸트의 님이다. 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나의 님은 伊太利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戀愛가 自由라면 님도 自由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自由에 알뜰한 拘束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군말」全文—

'님'의 일차적인 의미는 愛人이나 戀人이다. 그러나, 萬海가 갈망하고 지향했던 '님'은 그와 같은 한 사람의 愛人이나 戀人으로서의 님이 아니었다. 그것은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님'과 「 」표로 나타낸 '님'과의 차이에서 自明해진다. '님'의 일차적인 의미로서의 愛人이나 戀人을 萬海는 「 」표로 나타내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序文에 해당하는 이 「군말」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사실을 暗示 받을 수 있다. 하나는 '님'의 참다운 이데아에 대한 詩人의 認識이며, 다른 하나는 客體인 '님'과 主觀인 '나'와의 究竟的인 一體化이다. 「너희는 이름 좋은 自由의 알뜰한 拘束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에서 '그림자'란, '님'의 모방적 虛像을 의미하며 여기서 萬海는 '님'의 그림자에 대한 감정적 도취 내지 '님'에 대한 沒認識的인 태도를 떨치하며, '님'에의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 따라서 '님'의 참다운 이데아를 보려고 하는 인식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에서 우리는 主觀인 '나'(詩人)가 客體인 '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客體인 '님'이 主觀인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客體와 主體 즉 '님'과 '내'가 결국 어떤 하나의 究竟的인 根源으로 歸一, 一體化되고 있음이 示唆된다. 이러한 점은 '님'의 정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이다.

'님'과 나와의 同化된 一體化의 모습은 詩集 「님의 沈默」 전편을 통하여 극명히 나타나 있다

님이여 나의 마음을 가져가려거든 마음을 가진 나에게서 가져 가세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님에게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렇지 아니하거든 나에게 고통만을 주지 마시고 님의 마음을 다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가진 님에게서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님으로 하여금 나에게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방점: 필자)

—「하나가 되어 주세요」에서—

이 시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詩人은 客體인 '님'과 主觀인 '나'와의 合一을 企圖하고 있다. 하나의 究竟的인 根源으로 歸一하기 위해 企圖되고 있는 '님'과 나와의 合一, 이러한 合一이 이루어지는 경지는 主客의 구별이 없는, 이른바 主客一體, 物心一如의 경지이다. 이러한 경지는 내가 님을 사랑하고, 님이 나를 사랑하는 객관적 거리를 초월한다. 즉, 사랑의 無化狀態

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詩人은

당신과 내가 사랑의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참아 주세요. 그리하여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도록 하여 주세요.

—「참아 주세요」에서—

라고 노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님’이 나에게서 歸一되고, 내가 ‘님’에게 歸一되는 경지에서는 客觀인 ‘님’과 主觀인 ‘내’가 둘이 아니고 실로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초점으로 지향하는 것이 萬海의 詩이다. 그러면, 하나의 究竟인 指向點으로서 ‘님’과 내가 一體化하는 그 하나인 초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永遠한 生命的 支柱이다. 이 영원한 생명적 지주가 바로 萬海詩의 초점이 되는 ‘님’인 것이다. 萬海가 이처럼 갈구했던 ‘님’은 결국 祖國도 民族도 佛陀도 衆生도 아닌, 영원한 생명적 지주였던 것이다. 이 영원한 生命的 支柱를 표상한 것이 바로 ‘님’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 詩인이 참다운 生命的 成就를 갈구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뚜렷한 표증이라 하겠다.

참다운 生命的 成就, 그것은 마치 참다운 ‘만남’의 成就가 이별의 상황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듯이, 죽음의 상황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萬海詩에 죽음의 이미지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신은 나의 죽음 속으로 오세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의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나의 죽음의 뒤에 서십시오.

죽음은 虛無와 萬能이 하나입니다.

죽음의 사람은 무한인 동시에 하나입니다.

—「오세요」에서—

‘죽음’에의 참여는 生命的 內的 深化이며, 참다운 生命的 成就(사랑)를 얻기 위한 通過路이다. 萬海는 마치 「죽음 속에서 피는 한 떨기의 고요한 彼岸의 蓮꽃」<sup>18)</sup>과도 같이 죽음을 통하여 보다 큰 사랑의 성취를 갈구하며 영원한 생명적 지주에 귀일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님’의 象徵的 의미로서 이 영원한 생명적 지주는 이 詩人에 있어 自己救濟의 精神的 支柱로 回歸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詩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秋收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主人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중 략…………〉

그를 抗拒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激憤)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化하는 찰나(刹那)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에서—

이 詩는 日帝下의 政治的 現實을 告發한 작품으로 흔히 평가되고 있다.<sup>19)</sup> 송옥교수는 萬海가 3.1운동의 領導者의 한 분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이 작품을 「社會的·歷史的 正義에 비추어 현

18) 朴魯煥·印權煥, 前掲書, p. 157.

19) 金禹昌, ‘窮乏한 時代의 詩人’, 文學思想 제4호, p. 50.

실을 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義憤의 불기등을 드러낸 것<sup>20)</sup>이라고 해석한 바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쏟아지는 눈물」, 「스스로의 슬픔으로 化하는 찰나」와 같은, 詩人이 처한 절망적 상황보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詩人이 발견하게 되는 「당신」의 意味領域이다. 虛無와 絶望, 諦念과 自虐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당신' 즉 '님'은 祖國이나 民族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詩人을 구원하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당신'인 것이다.

金澤東교수도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인 狀況에까지 이르게 하여 一切를 諦念코자 하는 刹那에 이 詩人은 '당신' 즉 '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 다음 「'님' 곧 '당신'은 이 詩人을 絶望과 虛無, 虛僞와 自虐의 구렁에서 건져주는 등불이며 原動力으로서의 '당신'인 것이다.」<sup>21)</sup>고 하였다.

이와 같이, 萬海詩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님'은 조국이나 민족 또는 衆生을 제도하는 佛陀가 아니고, 이 詩人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生命的 내지 精神的 支柱이다. 이때, 조국과 민족, 또는 佛陀와 衆生은 그와 같은 '님'의 意味領域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Ⅱ. '님'의 不在와 認識의 空間

시집 「님의 沈默」 전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님'은 현재에 있는 '님'이 아니라, 항상 현재에는 떠나고 없는, 이별한 '님' 곧 不在의 '님'으로 나타난다. 그의 대표작 「님의 沈默」의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와 같이 萬海는 무엇보다도 먼저 '님'과의 이별을 노래한다.

그러면, '님'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즉 그의 생명적 지주였던 '님'이 不在의 '님'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님'이 不在한다는 사실, 곧 '님'과 이별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님'의 이별 곧 '님'의 不在를 祖國喪失의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님'을 祖國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과 꼭 같은 詩解釋의 圖式的인 강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萬海는 '님'의 不在, 즉 '님'과의 離別을 통하여 '님'의 實在을 획득하려 한 시인이었다. 죽음이 참다운 生命認識의 대 전제인 것처럼, 이별은 '만남'의 전제이다. 다시 말해서, '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때, 이별은 '님'과의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장차 '님'과 다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詩人에 있어 <離別은 美의 創造>가 될 수 있었다. 영원한 생명적 지주로서 '님'을 획득하기 위해 선행된 것이 '님'의 不在요, 이 '님'의 不在를 통해서 萬海는 '님'의 實在을 획득하려 하였다.

'님'이 不在하는 상태는 '님'이 떠나버리고 없는 空白의 상태다. 空白와 空虛의 상태는 老子에 의하면, 無名으로서 萬物의 始源이 되는 상태이며,<sup>22)</sup> 장차 充滿이 기대되는 상태이다. '님'의 不在는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有) 님' 곧 '님'의 實在로 충만될 것이 기대되며 약속된다. 모든 사물은 그것이 가득 차 있는 데에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데에 그 奧義가 있는 것이며, 있음(有)의 가치가 없음(無)의 구실로서 다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님'의 不在는 곧 '님'의 實在에 대한 깊은 認識을 수반한 것이 된다.

20) 송 옥, 前揭書, p. 312.

21) 金澤東, 前揭書, p. 73.

22) 老子, '道可道', 道德經 第一章.

萬海가 '님'의 不在 곧 '님'의 이별을 노래한 것은 般若의 空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佛敎思想의 근본이 되는 因緣, 즉 緣起에서 생기는 一切의 法은 모두가 '空'이며, '空'의 상태에 있다. 참으로 '있는 듯 없으며, 없는 듯 있는 것'이 이 세상의 實相이다. 그야말로, 色即是空이며 空即是色인 것이다. '空'이란 '有'와 다르지 않는 '空'이며, '有' 또한 '空'과 다르지 않는 '有'인 것이다.<sup>23)</sup>

萬海가 노래하고 있는 '님'의 不在, 즉 '님'의 이별은 이러한 般若思想의 空性和 뉘 수 없는 깊은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읍니다.

세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沈默을 휩싸고 둥니다.

—「님의 침묵」에서—

이 詩에서 우리는 萬海가 '離卽會'의 空觀으로써 이별을 통하여 님과의 만남과 사랑을 企圖하고 있음을 본다. '님'의 不在로 표상되는 '虛'와 '空'은 다시 '있는(有) 님' 곧 떠나지 않는 '님'으로 충만된다. 그러기에, '님'은 갔지마는 詩人은 결코 님을 보내지 아니한 것이다. 이같이 萬海는 '님'의 不在에 대한 認識의 空間에 의해 '님'의 實在을 획득하고 있다.

## VI. 超越的 비전(vision)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합니다.

해가 저물어 산그림자가 촌집을 덮을 때에 나는 기약없는 기대를 가지고 마을 숲 밖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苦待」에서—

나는 님을 기다리면서 괴로움을 먹고 살이 쪼뻛다. 어려움을 입고 키가 쏘뻛다.

나의 정조는 「自由眞操」입니다.

—「自由眞操」에서—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 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뭇배와 行人」에서—

이렇게 萬海는 시종일관 이별한 '님'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意識 속에 先取된 未來이다. 그것은 또 未來에의 기대이며, 비전이다. 萬海가 이별한 '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가 '님'에의 비전을 끝없이 열어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萬海는 님에의 비전을 통하여 현실을 극복하고 自我를 구제한다. 미래의 비전은 現實狀況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萬海는 실로 '님'으로써 숨막히는 어둔 時代를 달렸던 詩人이다.

'님'에의 기다림과 '만남'에의 信念이 萬海詩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그에게 '님'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가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울 수 있었던 것도 '님'이라는 큰 實在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3) 洪妙法藏, 般若心經講義, 서울, 正陽社, 1960, pp. 52-53.

‘님’과의 만남이라는 미래의 큰 成就를 위해서는 현재의 苦痛 짙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야 하며, 자기를 헌신하는 희생정신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萬海詩에 犧牲精神의 자세가 부단히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출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길이나 열이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잡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룻배와 행인」全文—

이 詩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당신’(행인)을 위해서 獻身하는 ‘나룻배’의 희생정신이다. 이 詩에서 萬海는 獻身과 犧牲에 나의 存在價値가 획득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때, 擬人化된 ‘나룻배’는 ‘님’의 비전이 통과해 가는 物相이다.

그의 名詩의 하나로 꼽히는 「알 수 없어요」에 나오는 ‘오동일’, ‘푸른 하늘’, ‘시냇물’, ‘저녁놀’ 등과 같은 自然物 역시 님의 비전이 통과해 가는 形相(物相)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萬海가 自然物을 객관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보편적 아트만(Atman)과 一元的 存在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萬海는 自然物을 통하여 아름다운 ‘님’의 이미지를 표출하며, 또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詩의 形象化를 얻는다. 이 때문에 觀念의인 詩가 되기 쉬운 그의 詩가 결국은 抽象과 觀念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룻배와 행인」에서 ‘나룻배’가 人間的 이미지로 창조된 것도 ‘나룻배’라는 自然物이 결국은 ‘님’의 비전이 통과해 가는 物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님’에의 비전. 그것은 곧 狀況에 대한 超越의 비전이다. 萬海는 ‘님’을 통한 미래의 비전으로써 현실을 克服하고 自我를 구원하며 미래의 성취를 先取했던 것이다.

## V. 萬海詩의 根本精神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님’은 영원한 生命的 내지 精神的 支柱로서의 ‘님’이며, 이러한 ‘님’에로 萬海의 全人格의 參與와 指向이 집중되어 있으며, ‘님’과 나의 一體化, ‘이별’과 ‘만남’의 통일, 그리고 ‘님’을 통한 미래의 비전을 열어 보이고 있음이 萬海詩의 世界임을 보았지만, 그러면 이러한 萬海의 詩세계의 밑바닥을 흐르는 根本精神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詩人의 世界觀, 現實의 社會關係, 그리고 文學意識에 따라서 狀況에 대한 詩人의



태도는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狀況否定的 태도, 둘째는 狀況肯定的 태도, 셋째는 狀況止揚의 태도이다. 狀況否定的 태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事象에 대하여 醜化와 不調和로 일관함이 보통이지만, 狀況肯定的 태도는 반대로 美化와 調和로 일관한다. 그러나, 狀況止揚의 태도는 美와 醜, 調和와 不調和를 동시에 收斂하며 昇華시킨다. 여기에는 異質性이 解消되고, 同質性이 回復된다.

萬海詩는 狀況止揚의 文學이다. 그러기에, '님'과 나, '이별'과 '탄남'의 異質性이 同質的인 하나로 융합, 통일되며, '이별'이 美의 創造로 까지 승화되는 것이다. 異質性을 해소하고 同質性을 회복하려는 정신은 融合의 정신이다. 이 融合精神이 바로 그의 詩世界의 構造를 이루는 정신적 핵심이다. 이 점에서 萬海詩의 特徵을 「同一과 矛盾을 융합한 論理」<sup>24)</sup>라고 한 송옥교수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

萬海의 詩가 狀況止揚의 文學으로서 그 근본 정신이 融合精神이라는 사실은 그가 설정한 '님'이 超越的 存在 및 現象的 存在로서의 辨證法的 統일을 이루고 있는 데서 더욱 명백해진다. 萬海의 詩를 세밀히 관찰하면, '님'은 절대적·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歷史와 現實 속에 있는 現象的 存在임을 알게 된다. 다음 詩를 보자.

님의 얼굴은 「어여쁘다」고 하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어여쁘다는 말은 일반 사람의 얼굴에 대한 말이요, 님은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어여쁜 까닭입니다.

자연은 어찌하여 그렇게 어여쁜 님을 인간으로 보냈는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의 가운데는 님의 짝이 될만한 무엇이 없는 까닭입니다.

—「님의 얼굴」에서—

이 詩에서 '님'의 아름다움은 人間世界를 초월한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초월적·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존재인 '님'은 이 地上의 現象世界 곧 人間世界로 보배어진 존재이다. 그것은 詩의 표현처럼 자연의 가운데는 님의 짝이 될만한 무엇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기에, 現象的 存在와 다름없이 '님'은 慰安에 목마르기도 하며, 現實狀況 속에서 울기도 하며, 때로는 웃기도 하는 것이다.

아아 님이여, 慰安에 목마른 나의 님이여, 걸음을 들리세요. 거기를 가지 마세요, 나는 싫어요.

—「가지 마세요」에서—

당신을 나에게서 빼앗아간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그대는 님이 없다」고 하였다지요.

그래서 당신은 남모르는 곳에서 울다가 님이 보면 울음을 웃음으로 변한다지요.

—「참말인가요」에서—

이와 같이, '님'은 역설적이지만 초월적 존재이면서 현상적 존재로 나타난다. 이것은 마치 菩薩이 涅槃을 證得하여도 涅槃에 住하지 않고 自覺에 의하여 生死苦海인 衆生界, 즉 地上에 停留함과 같다. 이때, 이 逆說은 모순이 아니라, 송옥교수의 지적 그대로 「同一과 矛盾을 融合한

24) 송옥, 님의 沈默 全篇解說, 서울, 科學社, 1975, p. 398.

論理」이다.

이렇게 초월적 존재로서의 '님'과 현상적 존재로서의 '님'의 변증법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의 詩世界가 大融合의 情神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詩는 萬海의 이러한 詩情神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된다.

나는 님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나의 팔이 나의 가슴을 아프도록 다질 때에 나의 두 팔에 베어진 허공은 나의 팔을 뒤에 두고 이어졌음  
 —「잠없는 꿈」에서—  
 니다. (방점: 필자)

방점 부분인 「나의 팔을 뒤에 두고 이어지는 허공」이야말로 萬海가 추구하였던 融合과 統一의 세계이며, 眞如의 세계이다. 大融合의 정신으로써 宇宙와 나, 事物과 내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세계임을 깊이 인식한 시인, 그가 바로 萬海 韓龍雲이다.

## Ⅵ. 萬海詩의 詩史的 位相

萬海의 詩作活動은 1920년대 중반기에 해당된다. 시집 「님의 沈默」이 上梓된 것이 1925년이 기 때문이다. 그의 詩的 出發은 이보다 훨씬 앞서 그가 1918년 9월에 발간한 불교 잡지 「惟心」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sup>25)</sup> 이 「惟心」誌에는 그의 최초의 詩로 꼽힐 수 있는 '心'이란 작품이 掲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집 「님의 沈默」이 나온 것이 1925년 이므로, 그의 詩作活動은 줄잡아 1920년대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겠다.

1920년대 初期詩들은 대개 슬픔, 눈물, 哀傷이라는 소박한 감정의 유출로 일관되어 있었다. 主情과 私的 感情을 주체 못하여 言語를 절제하는 힘을 잃어, 단순한 말의 반복이나 감탄사로 일관되어 있었던게 1920년대 초기시들의 일반적 性向이었다. 그러나, 萬海는 슬픔과 탄식이라는 韓國詩의 통폐로부터 벗어나 20년대 初期詩의 感傷의 主情을 극복하였다. 다음과 같은 感傷 止揚을 선언하는 詩는 그가 感傷을 詩의 치명적 결함으로 파악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는 叙情詩人이 되기에는 너무도 소질이 없나 봐요.

「즐거움」이니 「슬픔」이니 「사랑」이니 그런 것은 쓰기 싫어요.

당신의 얼굴과 소리와 걸음걸이와를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과 침대와 꽃밭에 있는 작은 돌도 쓰겠습니다.

—「藝術家」에서—

위의 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즐거움」이니 「슬픔」이니 「사랑」이니 하는 소박한 감정의 유출을 강력 배제하려 한다. 그리고, 그는 詩的 리얼리티(reality)를 획득하려 한다. 「당신의 얼굴과 소리와 걸음걸이와를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라는 句節이 그것을 극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된다.

萬海詩가 이렇게 感傷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詩的 自我가 個別的이 아니고 普遍的이 있기 때문이다. 感傷은 자기만의 감정에 安住하는 個別的 自我에서 비롯된다. 보편적 자아는 자기만의 감정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自己中心的인 個別的 自我 및 認識過程에서 혼

25) 金澤東, 前揭書, pp. 51—52 참조.

히 비롯되는 分析과 抽象으로부터 벗어나서, 綜合과 분화되지 않은 사물의 實在를 획득한다. 萬海는 20년대 初期詩의 통폐인 개별적인 私的 自我를 지양·극복하여 보편적인 시적 자아를 획득함으로써, 感傷은 물론 詩의 抽象과 觀念性을 깨끗이 벗어나고 있으며, 個別的 事象의 융합·통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萬海의 全人格의 참여 및 통일이 그의 詩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萬海의 '님'이 한 사람의 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님', 즉 보편적인 '님'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님'의 보편적인 인식은 시집 「님의 沈默」序文(군말)의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에서도 입증되며, 「錯認」이란 詩의 「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의 님인 때문이어요」에서도 방증된다.

萬海는 우리 나라 現代詩에서 보편적인 詩的 自我를 획득하여 20년대 初期詩의 感傷을 극복한 稀有한 例로 꼽히는 詩人이다. 萬海詩의 詩史的 意義는 실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 Ⅶ. 맺음말

이상에서 論及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萬海詩의 중심을 이루는 '님'은, 作品 自體에서 檢出되는 바와 같이, '永遠한 生命的 支柱'라 볼 수 있다. 萬海의 '님'은 조국이나 민족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불타나 중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조국과 불타의 復合的인 의미도 아니다. 萬海詩의 究極的 指向點인 '님'은 永遠한 生命的 지주이며, 따라서 自己 救濟의 정신적 지주인 것이다.

그런데, 萬海의 '님'은 不在의 '님'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님'의 不在는 '님'의 實在를 획득하기 위한 前提에 불과하다. 萬海는 '님'의 不在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서 '님'의 實在를 획득한다. '님'이 不在하는 空間은 그러니까 '님'이 實在하는 認識의 空間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萬海는 '님'을 통한 미래의 비전을 열어 보임으로써, 現實狀況을 극복하고 詩的 自我를 구제한다. 그의 詩에 '님'과의 만남이라는 신념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大融合의 정신으로써 宇宙와 나, 事物과 내가 別個의 것이 아닌 하나의 세계임을 인식하고, 융합과 통일의 세계를 갈구한 시인이다. 그의 詩世界의 밑바닥을 흐르는 狀況止揚의 융합 정신이야말로 萬海詩의 근본 정신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그는 한국 近代詩史에서 보편적인 詩的 自我를 획득한 稀有한 시인으로서, 1920년대 初期詩의 感傷을 극복한 詩史的 意義를 지닌다.

이상과 같은 고찰은 그의 시집 「님의 沈默」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음은 머리말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그의 多數의 遺作들을 포함한 萬海詩의 전반적·포괄적인 작품 연구는 여전히 하나의 課題로 남는 셈이다.

## 參 考 文 獻

- 韓龍雲, 님의 沈默, 서울, 漢城圖書株式會社, 1954.
- 韓龍雲, 님의 沈默·續 님의 沈默, 서울, 乙酉文化社, 1974.
- 金澤東, 韓國近代詩人研究(1), 서울, 一潮閣, 1974.
- 송 옥, '唯美的 超越과 革命的 我空', 詩學評傳, 서울, 一潮閣, 1963.
- , 님의 沈默, 全篇解說, 서울, 科學社, 1975.
- 朴魯堉·印權煥, 萬海 韓龍雲研究, 서울, 通文館, 1960.
- 任重彬, 韓龍雲一代記, 서울, 正音社, 1974.
- 趙演鉉, 現代韓國文學史, 서울, 人間社, 1968.
- , 餘白의 思想, 서울, 正音社, 1962.
- 예술회, 나라사랑 제2집(萬海 韓龍雲 특집호), 서울, 正音社, 1974.
- 吳世榮, '沈默하는 님의 逆說', 국어국문학 65.66, 서울, 국어국문학회, 1975.
- 金相善, '韓龍雲論序說', 국어국문학, 65.66, 서울, 국어국문학회, 1975.
- 趙東一, '金素月·李相和·韓龍雲의 님', 文學과 知性 24,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76.
- 張文平, '韓龍雲의 口', 現代文學, 1962.4.

